



즉시 배포용: 10/23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CUOMO 주지사, 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4200만 달러 규모의 주 예산을 뉴욕 시 주택공사에 배정하기로 결정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일 약 4200만 달러의 주 예산을 뉴욕 시 주택공사 (NYCHA,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)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. 본 예산 배정은 보안 카메라, 내/외부 조명, 충격 감지 시설 기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.

“우리 뉴욕 경찰서의 용감한 경관들은 최선을 다해 뉴욕 시의 범죄 건수를 역대 최저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.”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다. 또한 그는, “그러나 공영 주택의 수많은 거주민들은 여전히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. 그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저희는 뉴욕 시 주택공사에 예산을 투자하여 5개 자치구의 안전 및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모든 뉴욕 주민들은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.”라고 덧붙였다.

Carl Heastie 하원의장은: “의회 대다수의 의원 분들이 주거지의 안전성 제고와 합리적인 가격 조성을 우리 가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40만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이 뉴욕 시 주택공사가 개발한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입니다.”라고 말했다.

Andrew Lanza 상원의원은: “본 예산 배정으로 인해 뉴욕 시 주택공사가 제공한 주거지는 보다 안전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공영 주택의 거주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”라고 말했다.

뉴욕 경찰서의 1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공영 주택의 충격 및 강도 건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되었다. 몇몇 공영 거주지역의 폭력 범죄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몇몇 거주 지역에 안전 및 보안 기술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.

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범죄에 시달리는 공영 주택 거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의 상담을 거쳐 뉴욕 주 주택재개발부 (New York State Homes

and Community Renewal)는 금일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41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발표하였다.

2015-2016 뉴욕 주 통과 예산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위해 4억 7700만 달러가 사용되며 그 중 2억 4800만 달러는 JP Morgan이 출자하였다. JP Morgan의 출자분은 1억 달러를 뉴욕 시 주택공사 주거지의 설비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과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. 1억 달러 기금은 뉴욕 시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영 주택 주거지에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쓰일 전망이다.

혜택을 받는 주거 지역 및 제공 혜택의 내역은 [여기](#)를 참조하기 바란다. 해당 1억 달러 기금의 사용 계획은 곧 발표될 전망이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 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